제1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다문화시대의 교육, 이대로 좋은가?”

- 일시 : 2007년 10월 6일(토), 오후 3시 - 5시
- 장소 : 경기대학교 미래관 4층 세미나실
- 주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대학교

Contents

◐ **경기다문화교육포럼을 열며** ---------- 4

◐ 경기다문화교육포럼 안내 ---------- 5

◐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 조사 결과 ---------- 11

- **모경환**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상임위원, 서울대 교수)

◐ 다문화시대의 다문화교육 실태와 과제 ---------- 29

- **김해성**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대표)

◐ 지정토론 ---------- 41

- **박선종**(영덕중학교 교감, 전.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담당 장학사)
- **이관성**(원곡고등학교 교감)
- **최봉순**(경기도 가족여성정책과 과장)
- **정기선**(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실장)
- **최종식**(경기일보 사회부 차장, 한국기자협회 지역언론 활성화 위원장)

◐ 부 록 ---------- 57

-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소개
- 다문화교육 관련 실태 통계자료(경기도교육청, 법무부)
- 경기도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추진 계획(경기도 가족여성정책과)

경기다문화교육포럼을 열며…

오늘날 우리사회는 한국거주 외국인이 100만을 넘어선 다인종·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이들 중 31.5%가 거주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이민자 자녀와 이주노동자 자녀도 가장 많이 취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우리사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교육청, 지자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너지효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을 조정·통합하며 상호연대 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매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다문화교육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지역기관과 단체 간의 협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연구·정책전문가와 현장지도자 및 단체 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교환의 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은 「다문화시대의 교육,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하여, 학교 안과 밖의 교육현장 실태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모경환 교수님과 김해성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초청토론에 응해주신 관계기관과 단체의 관련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문화교육포럼에 관련된 전문가와 현장 지도자 및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10월 6일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소장　최충옥

제1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개요 및 일정

□ 행사개요

- 대주제 : '다문화시대의 교육, 이대로 좋은가?'
- 일시 : 2007년 10월 6일(토), 오후 3시-5시
- 장소 : 경기대학교 미래관 4층 세미나실
- 주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대학교

□ 행사일정

14:30~15:00	**등 록**
	개 회 사회 : **김연권**(경기대 교수)
15:00~15:05	**인사말** : **최충옥**(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소장)
15:05~15:15	**축 사**
15:15~15:25	**센터소개 및 포럼 안내** : - **서종남**(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부소장)
	주제발표
15:25~15:45	①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 조사 결과** - **모경환 교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5:45~16:00	**휴식시간**
16:00~16:20	② **다문화시대의 다문화교육 실태와 과제** - **김해성 목사**(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16:20~16:45	**초청토론** : - **박선종**(영덕중 교감) - **이관성**(원곡고 교감) - **최봉순**(경기도가족여성정책과 과장) - **정기선**(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실장) - **최종식**(경기일보 차장)
16:45~17:00	**종합토론**
	폐 회
17:10~	**다과 및 친교의 시간**

경기다문화교육포럼 안내

□ 구성 취지

1. 다문화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사회적 문제
2. 다문화가정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교육청, 지자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너지효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음
3. 이들을 조정·통합하며 상호연대 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대두
4. 지역기관과 단체 간의 협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연구·정책전문가와 현장지도자 및 단체 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교환의 장을 열어가고자 함

□ 포럼 개요

1. 명　　칭 : 경기다문화교육포럼
2. 주　　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3. 후　　원 :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대학교
4. 참석대상 : 다문화교육과 연관된 3개 그룹
   - 정부기관·지자체·시민단체·종교단체 관계자
   - 교육·연구·정책전문가
   - 현장 교사 및 실무자 등 100여명

□ 조직 구성 방향

1. 경기도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경기다문화교육포럼을 구성하고 진행함.
2. 이를 통해 경기지역의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교육·연구·정책 네트워크, 현장지도자 및 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축함.
3. 경기도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의 위원들과 경기도 지역 외국인근로자 단체 및 다문화가정지원 단체와 유관기관의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조직함.
4. 경기도민주시민교육연구회, 아름다운학교운동 경기지부, 한국청소년상담센터 등과 같은 교육관련 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실무자들을 포함.
5. 기타 언론기관, 기업, 종교단체의 다문화교육 담당 인사들을 포함.

□ 운영 방안

1. 포럼은 매월 격주로 2회 실시

2. 공개 포럼 : 월 1회
   - 모든 회원이 참여하며,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사회 각계의 저명인사를 초청, 특강과 다문화교육의 발전을 위한 폭넓은 의견·정보 교환 및 토론함.
3. 소그룹 포럼 : 월 1회
   - 각 분과별 세미나를 통해 자유로운 토론과 인적 교류를 갖도록 함.

□ 포럼회원 구성 및 확대 방안

1. 유관기관
   - 지자체 및 경기지역 다문화교육 관련(외국인 지원, 국제결혼가정 지원, 상담 등) 기관, 대학 및 초·중등교육기관(학교), 언론사, 종교단체 등의 대표와 관계자 등 30명 내외

2. 교육·연구·정책 전문가
   - 다문화교육 관련 각 분야 전문가(박사급 및 학교 교감급 이상)
     40명 내외

3. 현장 지도자 및 실무자
   - 경기지역의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교사와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실무자 30명 내외

※ 경기다문화교육포럼 회원카드 작성 및 제출 요망.

주제발표 1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 조사 결과

이 글은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소장 최충옥(경기대 교수)과 상임위원 모경환(서울대 교수)이 공동으로, 경기도내 초·중등 교사 2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본 인식도 조사는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가 2007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경기대학교에서 직무연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Ⅰ. 문제제기
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Ⅲ. 이론적 배경
Ⅳ. 연구방법
Ⅴ. 결과분석
Ⅵ. 결론 및 제언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 조사 결과[1)]

모 경 환(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상임위원, 서울대 교수)

Ⅰ. 문제제기

국내 거주 외국인 백만 명, 결혼이민자 십만 명 시대의 우리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노동 현장, 각 급 학교, 지역 공동체에서 다인종적, 다문화적 공존과 상호존중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2007년 8월 현재 체류외국인이 1,000,254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7월에 비해 15%나 증가하였다. 또한 국제결혼 이민자는 2002년 34,710명에서 2007년 8월 현재 104,749명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법무부, 2007).

UN(2001)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노동자의 유입이 없다면 1995년 5.6%였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50년에 24.7%로 증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최대 수준의 경제활동인구(366만 명)를 유지하려면 202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총 640만 명, 매해 평균 21만 3천 명의 이민자가 유입되어야 한다고 예측하였다. 이렇게 된다면, 2050년경에는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전체 인구의 13.9%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즉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현상은 지속될 것이며, 다문화가정[2)]의 수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소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 낮은 경제적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편견과 차별, 인권 침해를 경험하며, 한국 사회에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에도 상황은 열악하다. 언어 능력과 학습의 부진 및 학교 부적응을 겪고 있으며, 집단따돌림, 정체성 혼란, 정서장애 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주류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자치부(2007)의 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007년 8월 현재 6세 이하가 59.8%, 12세 이하가 32.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주로 유·초등학생들이지만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수년 내에 청소년의 한 층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학교 적응, 차별·소외감 해소가 사회적, 교육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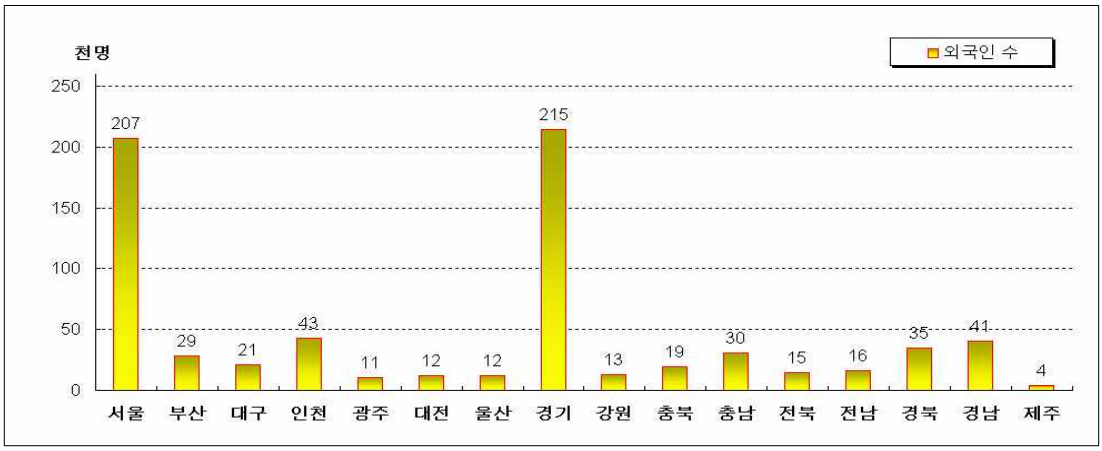
---

1) 이 글은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소장 최충옥)에서 실시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다.

2) 다문화 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로써, 외국인노동자 가정, 국제결혼이주자 가정, 기타 이주민(국적취득자, 유학생, 새터민 등)을 포함한다.

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이다.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에 전체의 64.4%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중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29.7%). 현재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전국 16개 시・군・구 가운데 9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7)[3].



<그림 1> 지역별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 행정자치부, 2007.

다양한 민족 집단이 한국 사회에 유입되면서 인구 구성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 소수 집단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들과의 상호 존중과 포용, 공존의 문제는 이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실현 정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다문화교육은 소수 민족 집단의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며, 모든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과 차별의 해소를 추구한다.

본 연구는 이렇게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경기도내 각 급 학교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교과서 및 학습 자료, 교수-학습 방법 등이 충분히 개발,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의 인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다문화교육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주체가 교사이므로 다문화교육 정책은 교사의 다문화적 인식을 살펴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3) 외국인이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서울에 5개 소(용산,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인천에 2개 소(남동구, 서구), 경기도에 9개 소(수원, 성남, 고양, 안산, 용인, 부천, 시흥, 화성, 김포)가 있다(행정자치부, 2007).

Ⅲ. 이론적 배경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고통을 감소시키고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목표이며(Banks, 2004),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실행은 교사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교사가 다문화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문화교육은 성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들이 다문화교육에 교사가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You(2000)는 교사의 신념은 다문화/반편견 교육의 실천에 결정적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Sia(1994)는 소수 집단 학생들의 학업 성취 및 자기 효능감 향상에 교사들의 인식과 신념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교사들이 학생들의 다양성에 대해 인식해야 하고, 이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다문화적 효능감(multicultural efficacy)이 중요하다. 교사 효능감은 교사가 학습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이 잘 배우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자신감을 의미한다(Guskey & Passaro, 1994). 교사의 긍정적인 기대와 스스로의 지도 능력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공을 경험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Payne(1994)은 교사가 자신과 다른 문화적, 경제적 배경 출신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황에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신념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Zeichner(1993)도 미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로 인하여 (a) 다문화적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예비 교사를 양성하고, (b) 교사들에게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교사 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Villegas & Lucas(2002)도 문화적 감수성이 있는 교사(culturally responsive teacher), 즉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을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여러 자질 중에서 교사 스스로 학교를 보다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능력을 갖춘 존재로 인식하는 것, 즉 다문화적 효능감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경기도내 각 급 학교 교사들의 다문화적 인식도를 살펴볼 것인데, 특히 다문화적 태도 및 이해도, 다문화적 효능감, 그리고 다문화교육의 목표에 대한 관점 등을 조사하고, 바람직한 다문화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Ⅳ.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293명(초등교사 68명, 중학교 국어과 교사 109명,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72, 고등학교 일본어 교사 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2007년 8월에 경기대학교에서 직무연수를 받은 교사들이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 30대 이하이고(90.4%), 경력 10년 미만(88.7%)의 교사들이었다. 조사 대상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의 특성

성별	남자	39(13.4%)
	여자	251(86.6%)
근무학교	초등학교	68(23.3%)
	중학교	109(37.2%)
	고등학교	115(39.4%)
학력	대학교졸업	207(72.6%)
	대학원재학(석사과정)	32(11.2%)
	대학원졸업(석사학위)	42(14.7%)
	박사과정 재학중	3(1.1%)
	박사졸업(박사학위)	1(0.4%)
종교	개신교	85(30.6%)
	천주교	51(18.3%)
	불교	22(7.9%)
	무교	116(41.7%)
	기타	4(1.4%)
가입단체	전교조	43(15.2%)
	교총	41(14.5%)
	한교조	1(0.4%)
	가입안함	193(68.4%)
	기타	4(1.4%)

* 결측값 제외

2. 배경 정보

먼저, 교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V나 신문의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기사를 얼마나 관심있게 보는지 질문하였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는 36%인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는 15.9%(44명)였다. 25.4%의 교사(71명)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 중이며, 다문화가정 자녀와 접촉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사도 24.8%(68명)에 달한다.

반면,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학부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2.2%(6명)에 지나지 않으며, 교사 연수시 다문화교육 관련 강의를 수강한 교사도 단 4명(1.4%)에 불과했다. 이는 절대다수의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교사 교육에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표 2>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경험

신문, TV 등에서 다루는 다문화가정 관련 기사를 관심 있게 보십니까?	매우 그렇다	13(4.5%)
	그렇다	91(31.5%)
	보통이다	139(48.1%)
	그렇지 않다	42(14.5%)
	매우 그렇지 않다	4(1.4%)
다문화관련 수업 학부 수강 경함 여부	있다	6(2.2%)
	없다	271(97.8%)
다문화교육 관련 교사 연수 경험 여부	있다	4(1.4%)
	없다	275(98.6%)
근무 학교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	71(25.4%)
	없다	208(74.6%)
다문화가정 자녀와 접촉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68(24.8%)
	없다	206(75.2%)

* 결측값 제외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multicultural attitude), 다문화적 효능감(multicultural efficacy),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도,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관점을 확인하고 다문화교육 실행을 위한 변화방향에 대하여 교사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에 교사다문화태도척도, 다문화적 효능감척도, 그리고 다문화이해도와 다문화교육 목표에 관한 문항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 발전을 위한 교사의 의견 수집을 위해서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였다.

(1) 교사 다문화 태도 척도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다문화적 자각(multicultural awareness)과 감수성(sensitivity)을 측정하기 위해 Ponterotto 등(1998)이 개발한 교사 다문화 태도 척도(Teacher Multicultural Attitude Survey: TMAS)를 사용하였다. TMAS는 Ponterotto 등이 1998년에 개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도구이며,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다.

TMAS는 다문화적 학교 환경에 대하여 교사들의 일반적 태도, 교사의 역할에 대한 태도, 교사 교육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Ponterotto의 척도에서 한국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세 문항을 제외하고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교사의 다문화적 효능감

둘째, 교사의 다문화적 효능감은 Guyton 등(2005)이 개발한 다문화적 효능감척도(Multicultural Efficacy Scale: MES)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Guyton(2005)은 다문화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인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다문화적 효능감(multicultural efficacy)라고 부르고 있다. 다문화적 효능감이란 교사가 다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교수 방식과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MES의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모두 20개인데, 이 중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14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3) 교사의 다문화적 이해도

셋째,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Pang(2005)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Pang은 다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교사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일곱 가지 오해를 제시하고 있다(212-213). 본 연구에서는 한국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한 개 항목(흑인 문화)을 제외하고, 한 문항을 추가하여 다문화교육에 대한 오개념(misconceptions) 일곱 가지가 포함된 문항을 교사들에게 제시하였다.

(4)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관점

넷째,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Pang(2005)이 제시한 관점을 사용하였다. 어떤 교사들은 학생들이 주류 사회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강조한다. 동화주의 교사(Assimilationist Teacher)라고 분류되는 이 유형의 교사들은 기본 지식과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을 가르쳐서 학생들이 주류 사회에 편입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단일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교사(Human Relations Teacher)도 기본 지식 습득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서로 다른 집단이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더욱 강조한다. 이들은 다른 민족의 음식, 의상 체험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사회적 행동을 강조하는 교사(Social Action Multicultural Teacher)는 학생이 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될 것을 강조한다. 배려 중심 교사(Caring-centered Teacher)는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이해하고 책임감을 함양하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을 강조한다. Pang은 세 번째, 네 번째 관점이 보다 다문화교육에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Pang의 관점에 기초하여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진술하는 문장을 위 네 목표에서 각 한 문장씩 추출하여 총 네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V. 결과분석

1. 다문화교육에 대한 태도

교사들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다문화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80% 이상의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적절하도록 수업 방법을 변화시켜야 하고(문항 #2),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문항 #4)는 항목에 동의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교사의 임무가 아니라는 점(문항 #5)에 동의하는 교사는 6.6%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유능한 교사가 되려면 교실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문항 #9)고 생각하는 교사도 93.8%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급 학생들의 구성과 상관없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문항 #11)고 생각하고 있었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학급 내의 갈등을 유발할 것(문항 #13)이라고 예측하는 교사는 2.3%에 지나지 않아, 다양한 문화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대다수의 교사들의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과 다문화교육의 관련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 내용과 다문화적 요소가 관련이 없다(문항 #12)고 응답한 교사는 3.4%에 불과했다. 또한 많은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문항 #8),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보람된 일(문항 #1)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학급에서 교사의 업무가 흥미롭고 해볼 만한 일(문항 #6)이라고 응답하는 교사는 34.9%에 불과했다.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일부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하는 것은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므로 이런 경우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표 3>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

번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다.	60 (20.5%)	167 (57.0%)	64 (21.8%)	2 (0.7%)	0 (0%)
2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그들의 필요에 맞게 수업 방법을 변화시켜야 한다.	89 (30.4%)	159 (54.3%)	31 (10.6%)	14 (4.8%)	0 (0%)
4	교사는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	86 (29.4%)	177 (60.4%)	27 (9.2%)	3 (1.0%)	0 (0%)
5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교사의 임무가 아니다.	4 (1.4%)	15 (5.2%)	38 (13.1%)	188 (64.8%)	45 (15.5%)
6	학급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늘어나면, 교사들의 업무는 더욱 흥미 있고 해볼 만한 일이 된다.	17 (5.8%)	85 (29.1%)	105 (36.0%)	80 (27.4%)	5 (1.7%)
7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사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16 (5.5%)	160 (55.2%)	100 (34.5%)	14 (4.8%)	0 (0%)
8	교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23 (7.9%)	161 (55.3%)	98 (33.7%)	9 (3.1%)	0 (0%)
9	유능한 교사가 되려면 교실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78 (26.6%)	197 (67.2%)	14 (4.8%)	4 (1.4%)	0 (0%)
11	학급 학생들의 구성이 어떤가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77 (26.3%)	171 (58.4%)	34 (11.6%)	11 (3.8%)	0 (0%)
12	다문화적 요소는 내가 가르치는 과목의 내용과는 상관없다.	0 (0%)	10 (3.4%)	39 (13.4%)	183 (62.5%)	59 (20.1%)
13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학급 내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1 (0.3%)	6 (2.0%)	24 (8.2%)	181 (61.8%)	81 (27.6%)

* 결측값 제외

한편,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에 대한 13문항을 합산한 결과가 교사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매우 그렇다'에 1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 5점을 부여하였으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는 긍정적이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근무 학교급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도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등학교 교사보다 중학교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고등학교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많을수록, 다문화적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이 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 교사 특성과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의 관계

		N	점수	표준편차	F	유의도
학교급	초등학교	64	24.94	3.88	10.795	p<.001***
	중학교	110	23.09	4.44		
	고등학교	108	21.84	4.27		
관심도	그렇다	98	21.43	4.51	12.208	p<.001***
	보통이다	136	23.56	4.13		
	그렇지않다	45	24.87	4.03		

* 결측값 제외

교사교육과 재교육에 대한 태도를 조사해본 결과, 91.8%의 교사들이 교사를 위한 다문화인식 프로그램이나 훈련이 부족한 편(문항 #3)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85%의 교사들은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를 교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문항 #10)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대학 교사교육 과정에 다문화교육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문항 #14)고 생각하는 교사의 비율은 51.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현행 교사교육 과정이 다문화교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교사들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며, 직전 교육보다는 현직 교사들의 연수가 보다 중요함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 > 교사 교육 및 연수에 대한 인식

번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	교사를 위한 다문화인식 프로그램이나 훈련이 부족한 편이다.	125 (42.7%)	144 (49.1%)	20 (6.8%)	2 (0.7%)	2 (0.7%)
10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교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3 (18.1%)	196 (66.9%)	35 (11.9%)	8 (2.7%)	1 (0.3%)
14	대학의 교사교육 과정에 다문화교육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25 (8.5%)	127 (43.3%)	117 (39.9%)	22 (7.5%)	2 (0.7%)

* 결측값 제외

2. 다문화적 효능감

교사의 다문화적 효능감에 대한 분석 결과 "보통이다"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교사들이 다문화적 상황에서의 교수 행위에 대한 절대적인 무능력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자신감을 나타내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각 항목별 응답 비율은 <표 6>과 같다.

<표 6> 교사의 다문화적 효능감

번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1	나는 학생들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9 (3.1%)	70 (23.9%)	141 (47.8%)	72 (24.6%)	1 (0.3%)
2	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수업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1.0%)	48 (16.4%)	127 (43.3%)	114 (38.9%)	1 (0.3%)
3	나는 다문화적 교실에 적합한 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2 (0.7%)	35 (11.9%)	125 (42.7%)	124 (42.3%)	7 (2.4%)
4	나는 교과서 내용에 나타난 인종적, 민족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찾아낼 수 있다.	7 (2.4%)	136 (46.6%)	116 (39.7%)	31 (10.6%)	2 (0.7%)
5	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편견을 발견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9 (3.1%)	130 (44.7%)	126 (43.3%)	26 (8.9%)	0 (0%)
6	나는 다양한 민족 집단의 학생들 간에 상호 존중심을 함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8 (2.7%)	144 (49.5%)	108 (37.1%)	31 (10.7%)	0 (0%)
7	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할 수 있다.	6 (2.0%)	115 (39.2%)	134 (45.7%)	36 (12.3%)	2 (0.7%)
8	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5 (1.7%)	144 (49.1%)	115 (39.2%)	29 (9.9%)	0 (0%)
9	나는 다양한 민족 집단의 학생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5 (1.7%)	106 (36.2%)	146 (49.8%)	36 (12.3%)	0 (0%)
10	나는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다.	5 (1.7%)	63 (21.6%)	162 (55.7%)	60 (20.6%)	1 (0.3%)
11	나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4 (1.4%)	36 (12.3%)	151 (51.5%)	95 (32.4%)	7 (2.4%)
12	나는 다문화가정을 힘들게 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다.	2 (0.7%)	92 (31.5%)	154 (52.7%)	40 (13.7%)	4 (1.4%)
13	나는 학생들이 타민족 집단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10 (3.4%)	130 (44.4%)	127 (43.3%)	26 (8.9%)	0 (0%)
14	나는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와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10 (3.4%)	125 (42.7%)	125 (42.7%)	33 (11.3%)	0 (0%)

* 결측값 제외

절반가량의 교사들이 다양한 민족 집단 학생들 간에 상호 존중심을 함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문항 #6)는 항목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교과서 내용에 나타난 인종적, 민족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찾아낼 수 있으며(문항 #4),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문항 #8), 자신의 편견을 발견하고 이를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문항 #5)고 응답했다. 또한 다른 민족 집단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며(문항 #13),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와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문항 #14)고 응답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할 수 있다(문항 #7)는 항목에 대해서는 41.2%의 교사가, 다양한 민족 집단 학생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문항 #9)는 항목에서는 37.9%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교사의 다문화적 효능감이 낮은 수준이지만, 교사들은 다음의 문항에서 더욱 낮은 자신감을 표출하였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수업 방법을 적용(문항 #2)하거나, 다문화적 교실에 적합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것(문항 #3),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문항 #11)과 관련된 항목에서 자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를 넘지 못했다.

다문화교육 실행을 위하여 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사료된다. 교사들은 개방형 질문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다. 교사 교육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유형이나 다문화교육에 적절한 자료를 개발하여 교사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도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Pang(2005)의 연구를 활용하여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7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오개념(misconception)을 측정하는 것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예"라는 답변을 했을 때 응답자가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오개념을 진술하는 문장들, 즉 다문화교육은 소수집단을 위한 교육이다; 다문화교육이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등의 항목에 대해서 89% 이상의 교사들이 '아니오'라는 응답을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3.4%의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은 학교에서만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하거나, 18.3%의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표한 것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오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면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항목에 25.6%가 동의한 것은, 교사들이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도

번호	내 용	예	아니오
1	다문화교육은 소수민족 집단을 위한 교육이다.	32 (10.9%)	256 (88.9%)
2	다문화교육은 분리주의를 강조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	3 (1.0%)	287 (99.0%)
3	다문화교육을 강조하면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74 (25.6%)	215 (74.4%)
4	다문화교육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한다.	7 (2.4%)	283 (97.6%)
5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은 학교에서만 시행해야 한다.	39 (13.4%)	251 (86.6%)
6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를 기대하지 않는다.	53 (18.3%)	237 (81.7%)
7	다문화교육의 초점은 소수민족 집단의 음식, 의상, 문화적 전통이다.	29 (10.0%)	260 (90.0%)

이러한 응답 분포가 교사들의 특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해본 결과,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들이 보다 높은 다문화적 인식도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8>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 여부와 이해도의 관계

	N	점수	표준편차	t	유의도
있다	70	6.44	.810	2.687	$p<.01^{*}$
없다	204	6.10	1.204		

4. 다문화교육의 목표에 대한 관점

다문화교육의 목표에 대한 교사들의 관점을 조사하기 위해 Pang(2005)이 분류한 네 가지 관점에 기초하여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진술하는 문장을 각 한 문장씩 추출하여 총 4 항목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교육의 목표 중에서 인간관계 강조 관점에 동의하고 있는 교사가 43.5%, 배려 중심의 관점에 동의하는 교사가 42.8%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행동 관점에 동의하고 있는 교사는 10.2%, 동화주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는 교사는 전체 교사 중 3.5%에 지나지 않았다. 많은 경기도 초·중등교사들은 모든 학생들이 협동하며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다문화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다.

<표 9>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관점

번호	목 표	빈도(명)
1	소수민족 학생들이 주류 사회에 통합되어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야 한다.	10 (3.5%)
2	타민족 학생들과의 협동적 활동을 장려하여 편견을 극복하고, 모든 학생들이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에 참여하도록 도와야 한다.	124 (43.5%)
3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및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학생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29 (10.2%)
4	학생들의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강조하여 다문화사회의 건설을 도와야 한다.	122 (42.8%)

5. 다문화교육을 위한 개선 방향

바람직한 다문화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변화에 대하여 교사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 교사, 학교 정책 등의 영역으로 나누고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였다. 교사들의 제안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과서

단일민족주의 관점의 교과서 서술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 사회가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단일민족의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의 확충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면 다양한 삽화와 사례를 제시하여 특정 문화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문화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한 보조 자료 개발을 요청하였다.

(2) 교사

교사의 태도 변화를 제안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교사가 개방적 태도를 가지며 다양한 관점을 견지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단어 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교사들은 자신의 인식 전환이 다문화교육 실행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양한 연수에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 학교 정책

다문화가정 자녀를 배려하는 정책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단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수용해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일반 교육제도에 쉽게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습 등을 비롯한 특별과정과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보충, 적응교육을 제안하였다. 또한 소수 집단의 언어를 사용하는 상담 교원을 배치 문제도 제기하였다.

또한 많은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계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 기타

무엇보다도 사회적 풍토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화의 다양성 및 나와 타인의 시각차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다문화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와 관련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는 교사도 있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도우미 학생 제도 신설이나, 재정 확보와 같은 행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5)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에 바라는 점

교사들이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에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 연수와 자료 개발 및 보급을 가장 많이 요청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교사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강좌 혹은 자료집의 제작과 보급을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교육할 때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의 개발 및 소개와 실제 교수-학습 사례를 포함하는 사례집, 매뉴얼 발간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결국 경기도내 다문화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집단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소수 집단 학생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소외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것은 물론 모든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다수 집단을 구성하는 학생들도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 인정하며 조화롭고 상호 신뢰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단순히 다른 지역, 다른 민족의 의복, 음식, 주거 문화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며, 한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 집단을 포용하고 통합하려는 것이다.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진전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다문화교육이 교사의 인식을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연구는 현재 다문화가정의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내 교사들의 다문화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교사들의 다문화적 태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며, 이해 수준도 높은 편이다. 많은 교사들이 인간관계 중심 관점과 배려 중심 관점의 다문화교육 목표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자신의 교수 행위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사의 자신감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수와 관련 자료 보급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가 경기도내 다문화교육 사업의 허브가 되어 더욱 매진해줄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법무부(2007). 2007년 8월 24일 보도자료: 체류외국인 100만명 돌파

행정자치부(2007). 2007년 8월 2일 보도자료: 외국인주민 1년 동안 35% 증가.

Banks(2002).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3rd ed.* Allyn and Bacon.

Dembo, M. H. & Gibson, S. (1985).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 Important Factor in School Improve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Vol. 86, Vo. 2., pp. 173-184.

Guskey, T. R. & Passaro, P. D. (1994). Teacher Efficacy: A study of Construct Dimension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31, No. 3., pp. 627-643.

Guyton, E. M. & Wesche, M. V. (2005). The Multicultural Efficacy Scale: Development, Item Selection, and Reliability. *Multicultural Perspective.* Vol 7, No. 4., pp. 21-29.

Pang, V. (2005). *Multicultural Education: A caring-Centered, Reflective Approach, 2nd ed.* McGraw Hill.

Payne, R. S.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Beliefs and Sense of Efficacy and Their Significance to Urban LSES Minority Students. *The Journal of Negro Education*, Vol. 63, No. 2., pp. 181-196

Ponterott, J. S., Baluch, S., Greig, T. & Tivera, L. (1998). Development and Initial Score Validation of the Teacher Multicultural Attitude Surve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58, No. 6., pp. 1002-1006.

Sia, A. P. & Mosher, D. (1994).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Concepts by Preservice Teachers in Two Institution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Teacher Educators. ED 367 603.

United Nations(2001). *Replacement Migration: Is It a Solution to declining and Ageing Populations?*

Villegas, A. M. & Lucas, T. (2002). Preparing Culturally Responsive Teachers: Rethinking the Curriculum.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 53, No.1., pp. 20-32.

You, J. (2000). Early Childhood Teachers' Beliefs and Practices Regarding Multicultural and Antibias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주제발표 2

다문화시대의 다문화교육 실태와 과제

1. 다문화시대의 교육현실과 아픔
2.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한국사회
3. 다문화사회를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
4. 다문화시대의 교육과제들
5. 우리가 꿈꾸는 학교

다문화시대의 다문화교육 실태와 과제

김해성(bosinkim@yahoo.co.kr)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대표
다문화복지센터/무지개어린이집 이사장)

1. 다문화시대의 교육현실과 아픔

사례 1. 필리핀에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J씨(37세)는 필리핀 유수의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잠시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현지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한국인 직원을 만나 결혼을 하고 1992년 한국에 입국을 하였다.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던 중 1998년 남편이 질병에 걸리고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가정에 위기가 닥쳐왔다. 이후 남편은 일을 하지 못하고 가정경제가 어려워지자 J씨가 나서서 낮에는 어린이집, 밤에는 영어학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병원비는 쌓여만 가고 유치원에 가는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생활은 점점 쪼들리게 되었다. 병들어 일을 하지 못하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크게 의지하고 살아 왔는데 결국 남편은 빚더미와 함께 자녀 둘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밤낮으로 일을 했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고 자녀 양육도 힘이 들었다. 어쩔 수 없이 2004년에 자녀 둘을 필리핀 친정집으로 보내게 되었다. 매일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하였고 이제 빚도 정리가 되고 있다. 하나의 꿈이 있다면 자녀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것이다.

이제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또 다른 걱정이 앞서고 있다. 엄마자신의 피부색이 검어서 그런지 자녀들의 피부색도 한국인보다 표시가 나도록 검은 편이다. 이전에도 자녀들이 어린이 집에 다닐 때 어린이 집을 가기 싫어했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철없이 피부색을 가지고 놀려 대었기 때문이다. 이후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학교에 가면 여전히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였다. 예전에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을 때 J씨는 큰 맘을 먹고 카메라를 들고 학교를 찾아 갔다. 열심히 달리는 자녀들의 사진이라도 찍어 주기 위해서였다.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던 중에 큰 아이를 만나게 되었다. 큰 아이는 정색을 하면서 엄마의 등을 떠밀어 댔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있는데 엄마가 필리핀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 놀림감이 되기에 당장 집에 가라는 성화였다. 눈물을 뿌리며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 올 수 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자연히 학교에 가기 싫어지고 학교공부에 흥미를 잃어 버렸다. 현재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은 차라리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피부색이나 언어에 대한 차별이 없기 때문이란다. 한편 또 다른 걱정은 벌써 4년째 한국을 떠나있는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미 한국어를 잊어버리고 있기에 학교에 가서 한국어나 진도를 어떻게 따라갈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엄마는 물론 아들과 딸도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인데 말이다.

사례 2. 아프리카 대륙의 우간다에서 온 A씨 부부는 두 살배기 딸을 데리고 우리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찾아 왔다. 집도 없고 아이 때문에 엄마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A씨 부부는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떼어 영아원에 맡기고 싶다는 요청을 해 왔다. 어렵게 안양에 있는 영아원에 아이를 맡기도록 주선을 하였고 매주 일요일마다 방문을 하여 정을 나누었다. 그런지 2년여가 흘렀을 시점에 이 부부가 눈물을 뚝뚝 떨구며 사정을 호소해 왔다. 자신들의 딸은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지만 한국아이들 틈에서 자라나다 보니 우간다 말은 다 잃어버리고 한국말만 쓰는 한국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바람에 일요일마다 찾아 가면 더듬더듬 한국말로만 힘들게 의사소통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호소였다. 진퇴양난의 지경에서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다.

사례 3. 스리랑카 출신의 P씨는 초등학생 자녀 둘을 데리고 관광으로 입국을 하였다. 한국에 비자기간을 넘겨 머물면서 일을 하게 되었다. 사글세방에 자녀들을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외국인의 자녀들도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소식들 듣게 되었다. 상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고, 근처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학교에 갔지만 한국어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눈만 껌벅이고 있었다. 측은하게 여긴 아이들이 말을 걸어왔지만 긴장을 하고 있는 아이는 입도 열지 못하였다. 그때 개구쟁이 아이들 몇이 다가와 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자 울음을 터트리게 되었다. 아이들은 이를 즐기기라도 하듯이 지속적으로 장난을 치게 되었고, 결국 스리랑카 아이는 왕따가 되고, 동물원 원숭이처럼 움추린 채 말도 하지 못하는 자폐증세로 발전하였다. 피부색이 다르고 한국어도 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면서 피가 마르는 고통으로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며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옥이며 고문이다. 이후 눈물을 머금고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부모와 헤어져 스리랑카로 귀국을 하게 되었다.

사례 4. 방글라데시 최고대학을 나온 M씨는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같은 대학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다. 이내 딸을 낳게 되었고, 혹여나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로 더 열심히 한국말을 가르쳤다. 그리고 한국인 어린이집에 다니도록 하여 한국아이들과 사귀며 살도록 하였다. 그래서인지 어떤 한국인 아이들보다 유창하게 한국말을 구사하게 되었다. 이제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입학 후 다음 날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잠시 어떻게 공부를 하나 창문을 넘겨보다가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담임선생님은 다짜고짜 "어머니, 애는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네요?"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한국어가 문제가 될까 싶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교공부를 시작한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것이다. 과연 책이라도 읽어보라고 시켰는지, 아니면 말을 해보라고 했는지 다 의심스러웠다. 그런데 선생님이기에 차마 답변이나 항변을 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 왔다. 곰곰 생각해보니 선생님도 피부색이 좀더 검은 딸에 대해 지레짐작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돌아왔다.

열흘이 지났을까? 딸이 방과 후 집에 돌아와 울면서 말을 시작하였는데, 선생님이 자기

만 미워한다는 내용이었다. 얘기인즉슨 반 친구 하나가 전학을 갔는데 자리가 비게 되었고, 이 딸의 짝을 뽑아 빈자리를 채우고 딸은 혼자 앉게 되었다는 것이다. 때마침 인사를 배우는데 짝과 함께 서로 인사연습을 하게 되었고, 짝이 없는 딸은 책상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가방과 함께 인사연습을 했다는 것이다. 엄마는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며 펑펑 울었다. 안그래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는 말처럼 과연 아무런 생각없이 선생님이 그랬을까하는 분노가 일어났다. 따지러 갈 수 도 없고, 그냥 놓아 둘 수도 없는 고민에 빠졌다. 아마도 처음 딸의 짝이 자기 엄마에게 자신의 짝은 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엄마의 요청에 따라 딸의 짝을 빼내지는 않았을까하는 짐작을 해본다는 것이다.

사례 5. 어깨에 책보를 둘러매고 운동화 대신 털신을 신은 시골 촌뜨기가 상경했다. 1972년 초등학교 5학년 가을, 나는 '엉아'처럼 서울유학을 하게 되었다. 커다란 운동장, 현대식 학교 건물, 아이들의 세련된 모습. 어린 나이에 '서울'이라는 이름의 모든 것은 나를 주눅들게 했다. 농사덕분에 두둑하고 자랑스럽기만 했던 쌀독은 그저 시골 이야기였다. 아버지의 지갑은 사업 실패로 언제나 빈약했으며 가족들의 하루를 먹여 살리기 바쁜 어머니는 나를 돌볼 여유가 없었다. 전학 후 첫 등교 날, 책을 둘둘 만 책보를 어깨에 학교에 온 나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옆구리를 찔러가며 소곤대기 시작했다.

"소풍 왔냐?"

"책가방은 어디 두고 보자기로 싸가지고 왔네!"

책보를 툭툭 치면서 아이들은 놀리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시골에서는 책을 보자기에 싸서 남학생들은 어깨에, 여학생들은 허리에 둘러메고 다니는 것이 보통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왜 놀리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 분위기에 압도돼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억울하고 화도 났지만 한마디 항변 할 용기조차 낼 수 없었다. 그날이 얼마나 길던지... 아이들의 놀림은 집요하게 계속됐고 초침이 분침처럼 느껴졌던 그 날 이후 학교생활에서 '왕따'는 따 놓은 당상이었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된 학교생활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다. 따돌림과 놀림 속에서 시작된 학교생활. 나를 같은 반 친구로 상대해 주지 않는 학교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누군가 내 입장을 알아주는 친구가 생기지는 않을까?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나만의 생각이었다. 그 무렵 내가 학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란 집에 갈 시간을 꼽아보는 것이었다.

'이번이 몇 교시지?'

항상 풀이 죽어있는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친구도 없었을 뿐더러 나 역시 먼저 누군가에게 말을 붙인다거나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 친구들이 모여 소근대고 장난치는 시간이 두려웠고 점심시간 혼자 도시락을 먹어야 하는 그 시간이 두려웠다. 그나마 수업 시간이 되어야만 마음을 놓곤 했던 어느 날, 그날따라 교실에 들어온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을 주욱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때 선생님과 눈이 마주친 나는 당황해서 얼른 고개를 숙였다.

"김해성! 일어나서 국어책 72페이지 읽어봐라"
나는 어쩌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일어섰고 반 분위기는 일제히 싸늘해졌다. 간신히 첫 줄을 읽었다. 그런데 "...했습니다." 하자 몇몇이 "했습니다~"를 따라하는 것이었다. 놀림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생님의 지시인지라 읽기를 계속했다. "...했습니다." 하자마자 이번엔 모든 아이들이 합세해서 "했습니다~"라며 사투리가 섞인 내 말투를 흉내내는 것이었다. 끝내는 웃음보가 터지고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조용조용! 김해성! 똑바르게 큰소리로 읽지 못해?"
선생님의 불호령으로 소란은 잠시 주춤해졌고 나는 다시 책 읽기를 시작했지만 당황해서인지 사투리의 억양과 발음을 조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 나의 귓가를 맴돌았고 선생님의 호통은 나를 주눅 들게 하다못해 다리 힘이 풀리게 만들었다. 급기야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반장은 담임선생님 앞에 섰다.
"반장! 김해성의 뺨을 세 대 때린다. 실시!"
나의 울음소리는 아이들을 더욱 신나게 만들었고, 교실은 그야말로 왁자지껄 시골 장터를 방불케 했다.
"김해성! 지금 뭘 잘했다고 눈물 바람이야? 이리 나와!"
선생님의 격앙된 목소리에 교실은 순식간에 찬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반장! 너도 앞으로 나와!"
담임선생님의 지시가 내려지자마자 반장은 잘 훈련된 셰퍼트처럼 망설임 없이 힘껏 내 뺨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철썩, 철썩, 철썩!'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얼굴은 손가락 자욱이 선명하게 남은 채 부풀어 올랐다. 뺨을 맞은 아픔도 아픔이지만 수업시간에 집단적으로 놀리며 장난을 친 아이들을 혼내기는커녕 거꾸로 놀림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시골아이를 불러내어 그것도 반장을 시켜 따귀를 때리는 선생님이 원망스러웠다. 억울함 때문에 터지는 울음을 누가 막으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나를 본 선생님은 다시 반장과 나를 나란히 불러내서는 아까보다 더 세게 때리라는 지시를 했다. 다시 뺨 세 대를 맞았다. 자리로 돌아온 나는 입술을 세게 물었다. 소리를 내어 울었다가는 다시 뺨을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학교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이유도 모른 채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하고 절벽으로 내몰린 심정... 어린 시절 여섯 대의 뺨을 얻어맞은 그 혹독한 경험을 나는 절대 잊지 못한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게 된 계기와 원동력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어설프고 어색한 한국어 발음과 억양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그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폭행과 욕설까지도 묵묵히 참아내야만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금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상황과 맞닥뜨려 좌절해야만 하고 울음을 삼켜야만 한다. 스스로에겐 떳떳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설 수 밖에 없는 '절망'이라는 낭떠러지. 그래서 나는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지난 날 내 뺨의 통증은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2.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한국사회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현재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고,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4천913만명)의 2%를 넘어섰음.
- 2006년 5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한국의 출산율은 1.08명으로전 세계 최저 출산율임. 현재의 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100년에는 남한 인구는 2,31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65세 이상의 인구는 1990년 5.1%에서 2005년 9.1%, 2020년에는 15.7%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이는 우리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음.
- 인구 부족은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되어 현재 40여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노동자가 100만 명, 2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외국인 체류자도 500만명, 천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에서는 '외국인을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검토하거나, 법무부의 국적제도 T/F팀에서는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 혹은 속지주의(屬地主義)를 통해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들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방안과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제도 대폭 확대', '귀화제도 간소화', '이중국적 허용'등의 파격적인 안(案)을 검토하고 있음.
- 2005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결혼 통계에서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은 13.6%임. 이는 100쌍 중 13쌍 이상이 외국인과의 혼인임.
-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사이에 한국 국제결혼은 13,494쌍에서 43,121쌍으로 증가했고, 이 수치는 220%가 증가한 것임.
- 특별히 농촌의 경우에는 세 쌍 중 한 쌍이 외국인과의 혼인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많은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 이는 우리가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음.
- 위의 서술은 결국 다인종, 다민족사회, 다문화 사회가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임.

3. 다문화사회를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

-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이 잘 사는 나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들이 입국을 시작했음.
-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임단가의 급격한 상승과 수출경기의 호조로 한국에도

인력난이 시작됨.

- 우리의 경제가 1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면서 3D업종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됨. 영세한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노동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현실임. 기업주들은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음.
- 중국과의 수교를 앞두고 많은 중국동포들이 입국을 시작하였고 구 소련지역 동포들도 입국이 성행함.
- 국내 외국국적 체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음.(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 40여 만 명 이외에도 교수, 유학생, 회화강사, 엔지니어, 사업가와 그 가족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음)
- 외국인노동자는 외국인산업연수생, 해외투자기업연수생, 고용허가제의 외국인노동자, 외국국적 동포 등 40여만 명이 일하고 있음.
- 국내 외국국적 체류자 100만 명 중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가 25만 여 명(28.7%)이고, 그 중 중국동포가 22만 여 명(88%)에 이르고 있음.
-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한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의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가 15만 여 명을 넘어서고 있음.
- 농림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들이 급증하고 있음.
- 국내에는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피부색과 언어가 다름으로 인해 차별을 받거나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오해와 고통을 겪고 있음.
- 아직도 외국인노동자의 절반 정도는 불법체류자인바 이들이 불법체류자이기에 겪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있음.
- 지금은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시작단계로서 첫 번째 단추를 잘 꿴다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프랑스의 인종폭동과 같은 사태가 우리에게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음.
- 외국인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못하다면 나이가 많아지고 병이 들면 국가가 사회적인 부담으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회가 도래할 수 있음.
- 외국인 이주민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한다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못하다면 '사흘 굶어 남의 집 담 안 넘는 사람 없다'는 말처럼 만의 하나라도 이들이 범죄자가 된다면 그 대가는 고스라니 한국 사람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음.
- 지금부터 이주민들을 위해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투자하며, 인권을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간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나중에 더 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거나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음.

4. 다문화시대의 교육과제들

- **다문화교육을 위한 자료조사, 연구 사업 :** 교육청과 학교의 관할지역에 있는 외국 이주민들의 국적, 숫자, 남녀별, 외국인노동자, 결혼 이민자와 자녀들, 지역적 분포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의 요구는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사업임.
- **다문화교육을 위한 위원회 구성 :** 다문화교육을 위해 교육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학자,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고 필요한 사업과 내용을 정하며, 이를 추진하는 위원회임.
- **교육청과 학교에 다문화교육을 위한 부서 설치 및 담당자 배정 :** 다문화를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부서를 설치하며, 담당자를 배정하여 책임적으로 다문화교육을 추진하도록 함.
-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배정 :** 교육청이나 학교의 각 위원회 중 다문화교육 관련일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배정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배려함.
-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 민원실에는 다문화가정 전용 창구 마련 및 토탈 서비스 :** 다문화교육을 위한 별도 창구 설치 및 모국어 행정서비스 등 실시
- **해당 외국어로 만들어진 다문화교육 가이드 북 제작과 비치 및 배포**
  : 다문화교육에 관한 안내서를 각국어로 제작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함.
- **국제이해교육을 초, 중, 고등학교, 지역사회에서 실시 :**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강화 및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캠페인 전개
- **교육청별로 '다문화교육센터' 혹은 '다문화교실'을 설치 :** 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일방적인 한국문화 전달을 지양하고 이주민의 문화를 내국인에게 알리는 쌍방향 문화교류 장치를 마련
- **외국어 통역 써비스센터 설치(모국어 통역 서비스 1644-0644와 연계 등) :** 다문화가정의 배우자들과 이주민을 위한 통역 서비스 센터를 마련하여 언어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함. 또한 현재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17개국 모국어 상담전화(한국어,몽골어,베트남어,중국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영어,필리핀어,스리랑카어,러시아어,우즈케키스탄어,키르키스탄어,파키스탄어,방글라데시어,캄보디아어,미얀마어,네팔어)와 연계(삼자통화방법)하여 통역서비스 지원대책 마련.
- **다문화교육을 위한 외국어 Web-site 개설 및 활용 :** 현지어로 운영되는 다국어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정보전달)
- **이주민 나라별 전통 축제 개설 및 해당국가와의 교류 및 우의증진 :** 교육천이나 학교별로 다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해당국가와의 문화 교류 및 친선관계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함.
- **다문화에 대한 이주민들의 공연 및 발표 등 문화교류 :**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여 이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 매사에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내국인에게는 생소한 외국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마련해 줌.

- **다문화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단체, 종교기관, 기업의 지원활동 요청 및 조직 구성 :** 민간단체 및 종교기관,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다문화교육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 **결혼이민자를 학교와 지역에서 강사, 교사로 활동하도록 배려 :**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주민의 언어를 내국인에게 학습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여 한국인은 각국언어를 학습하고, 이주민은 일거리를 갖게 되고, 소득을 얻을 수 있음.
-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과 주민 인식 개선사업**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어린이 집 설립 및 감면과 면제의 폭 확대**
-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초, 중, 고등학교 설립**
- **다문화가정 부부교실(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함께 등록)**
- **다문화가정 주부교실(한국의 예절, 전통, 음식, 생활 등 학습)**
-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실, 컴퓨터 교실, 전통 문화교실 개설**
- **이주민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 개설**
- **다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외국 이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과 활동 조직**
- **다문화가족 공동 캠프 실시**
- **다문화시대에 걸맞는 다문화교육 환경을 조성**
- **다문화교육을 위한 창의적인 발상과 사업의 구상**
- **다문화교육을 먼저 시행한 선진적인 국가나 교육기관의 사례를 연구, 경험 공유**
- **교육단체의 다문화교육 지원행정체계를 수립해야 함.**
- **교육법과 제도에 있어서 각종 차별적인 조치는 해제하고 불편은 제거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우리가 꿈꾸는 학교

-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가장 큰 대책은 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교육대상은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자녀들.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 저개발 국가의 공관 직원 자녀들과 유학생들의 자녀, 한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회화강사 등의 자녀들. 한국 저소득층, 극빈가정의 자녀들
- 기존 학교의 경우 언어습득의 뒤처짐으로 학습능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색에 대한 놀림 등으로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됨. 이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거나 또는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 없는 열악한 자리로 이들을 내몰 것이 예상됨
- 지금은 국제화 시대로서 지구촌 한 가족임. 모든 국경과 민족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하나로 소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 이러한 통합된 세계에서 의사소통의 핵심은 언어이고 서로 다른 언어를 매개하는 통역, 번역은 국제화시대의 핵심적인 기초임.

- 우리가 꿈꾸는 학교에서의 공용어는 한국어 임. 한국의 교육과정에 따라 기본적인 학습을 한국어로 진행하되 부모 중 외국 출신 배우자의 언어를 아동들에게 동시에 습득하도록 함. 결국 어린이 집과 초등학교에서 한국어와 제 2모국어를 동시에 습득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어는 물론 제 2모국어에 대해서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전인적인 교육의 바탕에 다중 언어를 구사하는 특화된 능력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 모의 이중언어를 기초적으로 어릴 때부터 습득하게 되는 바 어린이 집과 학교에서 언어에 대한 학습을 전문적으로 특성화 시키는 것이 이들의 언어능력을 배양시키는 핵심이 될 것임.
- 예) 다수의 한국어 교사들이 모든 학습을 진행하겠지만 중국국적자와의 결혼한 가정의 자녀는 중국어 선생님이 중국어를 학습시키거나 학과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결국 한국어와 중국어에 대한 언어 습득뿐만 아니라 이중언어로 학습을 진행하게 함. 그 결과 이들이 대학에 진학시 '중국어학과' 또는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했을 경우 어느 한국학생보다 뛰어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이들은 각광을 받는 뛰어난 학생으로써 자리를 잡게 될 것임. 졸업을 하면 이들은 중국과의 엄청난 교류속에서 국가외교를 담당하는 외교관이 되거나 수많은 무역거래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로 자리잡거나,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기업의 업무를 진행하거나 방송, 회사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 분명함.
- 어릴 때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약점 때문에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부적응,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함으로써 사회에서 뒤떨어지는 삶을 살수 밖에 없지만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최고의 장점으로 되살려내고** 자신의 삶을 자신있게 살아가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
- 현재 좋은 기업이나 좋은 직장을 선점하는 이들은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이들임이 분명하고, 그 언어구사능력 까닭에 좋은 대우가 보장된 직장을 선택하고 삶을 영위하고 있음. 그렇다면 우리가 키워낼, 그리고 충분한 가능성을 내재한 이주민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자는 것임.
- 결론적으로 한국인과 외국인배우자의 부부일 경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부, 모의 양 모국어를 동시에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오히려 최고의 장점으로 승화시켜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주체적인 삶을 개척하고 꿈을 이뤄나가는 인간으로 교육시켜내고,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훌륭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임.

초청토론

- 박선종(영덕중학교 교감,
  전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담당 장학사)
- 이관성(원곡고등학교 교감)
- 최봉순(경기도 가족여성정책과 과장)
- 정기선(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실장)
- 최종식(경기일보 사회부 차장,
  한국기자협회 지역언론 활성화 위원장)

다문화 시대에 적합한 세계시민 교육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박 선 종(영덕중학교 교감)

하인즈 워드의 방문을 즈음하여 다문화 교육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관점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 이해 교육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NGO,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들이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다문화 가정을 포괄적 소외 계층으로 판단하여 지원하는 것을 일시적이며 근시안적이라 한다면,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일반학생들의 타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가치관 형성 교육은 보다 근본적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다문화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2007년에 추진할 예정으로 예산 요구 중인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운영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긴 하지만 단위학교별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 수는 소수(5명 이내)에 불과하여 단위학교별로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지역교육청별로 1~2개의 다문화 교육 중심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 다문화 가정 1:1 결연제 운영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에서 교육제도, 교육문화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학부모(국제결혼여성, 외국인 학부모 등)들이 자녀의 교육활동 지원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와 해당 학교의 교사와 1:1 결연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 다문화 가정 멘토-멘티제 운영

다문화 가정 자녀 중 문화적 차이, 또는 언어 문제로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교사, 대학생,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다문화가정 학습활동 지원 시스템이다.

□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직무연수과정 개설

다문화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교육 역량이다. 현재 60시간 이상의 다문화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으로 대학 등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과정(120시간 이상)을 개설하고자 한다.

□ 다문화 교육 사이버 연수과정 운영

다문화교육 담당 핵심요원 양성을 위한 직무연수과정과 병행하여 다문화교육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이버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수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의 다문화 교육,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이 관 성(원곡고등학교 교감)

이주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센터와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각종 종교 단체들이 한국사회의 다문화 교육을 맡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이 단체들은 인종적, 문화적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제 2세 교육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여 우리 사회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 가정 (2005년 43,121건-장영실 2007)의 급속한 증가는 교육부, 법무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행정기관의 대책 마련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은 지역 NGO에서 주로 담당했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은 초창기는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서 주로 담당하다가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차츰 증가함에 따라 2006년 처음으로 안산원일초등학교(12명)와 시흥시 화초등학교(9명)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자녀 대상 교육은 시·도교육청 별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 학급 운영 속에서 다문화 가정 학부모 연수와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 자료를 개발하는 등 학교에서 담당교사별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소수자 적응교육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6년 사회통계 조사 결과('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30.6%)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수자를 대상으로 한 소수자 이해 증진 교육이다. 현재도 이러한 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교사 연수, 인권보호단체의 학생 학부모 대상 강연, 일반 가정과의 결연, 다문화 행사 참여 등 대부분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다. 즉 우리의 다문화 교육은 이주자를 한국사회에 적응시키려는 측면에서 실행되었고, 우리가 스스로 이주자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려는 교육, 차별을 금지하는 교육,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교육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주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한다.

이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소수자 보호를 위한 다문화 교육과 병행한 다수자 변화를 위한 다문화 교육이 절실하다.

◉ 문화적 이해 접근을 통한 다문화 교육의 대안

안산시 소재의 외국인 수는 2007년 8월 31일 현재 29,812명으로 주말에는 국경 없는 마을을 중심으로 4만명이 이동 인구로 추정한다.

원곡고등학교는 2004년부터 문화적 접근을 통한 체험 중심 다문화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다수자 변화를 위한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의 행사에 학생들을 동참시킴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타문화를 존중하는 의식을 길러주고 있다.

안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종교 단체 주축의 10개 이상의 외국인 공동체가 있다. 각 10개의 공동체와 12개의 협력동아리가 행사에 함께하면서 다문화 교육에 참여했다. 또한 진로와 직업 시간과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에 공동체와 협약을 맺어 이주민을 강사로 초빙 활용함으로써 타문화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행사는 참여 인원이 400명 이상이 많았으며, 체육대회,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그 밖에 공동체내 작은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본교는 2007년 9월 경기도 다문화센터 체험 학습장을 교내에 마련하여, 현재 12개국 전통 의상을 마련하여 각국의 이해 자료와 함께 전시하고 있으며, 각종 참고도서, 음반, 안내 책자, 해당국 대사관에서 보내온 물건들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2대에 방문자가 각국 문화에서 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공익 요원 1명에게 다문화 해설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교육하여 영상 학습실에서 다문화에 대한 방문자 안내를 맡게 된다.

안산시교육청과 협조하여 초·중등학교의 창의적재량시간에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하는 등 체험 학습을 하도록 돕게 되며, 학부모와 지역주민, 안산시민들의 체험학습장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한다. 체험학습장 옆에 신축되는 생활관에서는 방학기간과 주말에 다문화캠프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안산시 외국인 복지과에서는 본교의 다문화체험장을 다문화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안산시 투어 코스로 선정하였다.

또한 다문화 체험 센터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자(女)에 대해 한글 멘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 상담과 한국 음식 요리에 대한 주 1회 강좌도 진행 중이다.

이런 활동들은 학부모와 교사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다문화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향후 다문화 교육은 소수자 적응 교육과 더불어 다수자의 소수자 이해 교육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을 위한 제언

최 봉 순(경기도 가족여성정책과장)

먼저,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하고 발전방안 모색을 시도 하시는 경기도 다문화교육센터에 감사드린다. 이제까지는 이주당사자들의 국내 생활적응력을 키우는 데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 등이 집중되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 또는 다문화 가정의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서비스가 본 센터를 통해서 구체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

첫째,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길 바란다. 즉,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서비스가 개입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학교라는 틀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주자녀들은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런 급격한 혼란을 완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준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유치원 시기일 것이므로 이 시기의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함께 진행되길 바란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부모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의 대상이 학생에게만 맞추워져서는 근본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그 학생을 둘러 싼 가정환경에 대한 이해와 가족구성원을 함께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정들이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고민들에 대한 상담 창구의 상설이다. 각 개별학교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등 온라인 비밀상담방 또는 오프 라인상으로 상담창구를 개설, 학령기의 심리와 상담기법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사후 상담에 응할 수 있음은 물론 사전 예방상담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성공하거나 안정된 생활을 하고있는 이주여성자원을 활용하여 이주가정의 자녀들에게 멘토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노력과 아울러 이러한 여성들도 학교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활할동시간 등 적절한 시간을 활용하여 이주학생들이 외국부모나라

의 언어와 문화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므로서 내국인 학생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당해 학생은 부모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다문화가정지원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통합에 이를 것이다.

경기도 거주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과 교육 실태 및 지원정책

정 기 선(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책개발실장)

1. 경기도 거주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결과에 나타난 자녀양육과 교육 실태[4)]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810가구 중 60.6%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491가구)임.
- 자녀연령대 분포: 영아 16.6%, 2~5세 29.6%, 6~7세 12.5%, 초등생 15.2%, 중고생 4.9%
- 남성결혼이민자 가족 203가구 중 50.2%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음.
- 자녀연령대 분포: 영아 16.3%, 2~5세 19.7%, 6~7세 3.9%, 초등생 8.4%, 중고생 4.4%

□ 외국인들이 미취학 자녀와의 의사소통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임(외국인 부인가족 48.5% vs 외국인 남편가족 64.3%). 외국인 부인의 경우, 자녀와의 대화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한국어만 사용하는 비율과 거의 슷했음. 부인이 한국인인 외국인 남편은 34.3%가 자녀와 대화 시 이중언어 사용함. (한국인 부인 15.6%).

□ 외국인 부인들 중 자녀가 한국어를 잘 말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비율이 약 40%임. 중국 조선족 어머니의 경우에 그런 걱정을 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19.7%), 필리핀 어머니(60%), 베트남 어머니(58.5%)가 더 많이 걱정하고 있음.

□ 외국인 부인의 19%가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53.3%는 한국어만을 사용하여 책을 읽어주고, 22.7%는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해서 책을 읽어준다고 함.

□ 자녀와의 언어소통상 불편함을 느끼는 외국인 부인은 43%임. 그 정도는 출신국적에 따라 다른데, 중국 조선족 어머니는 26.3%로 가장 낮고,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어머니의 경우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더 높음 (베트남 부인 75%, 중국한족 부인 60%, 필리핀 부인 50%).

□ 학령기 자녀들과의 대화빈도, 자녀와의 대화 시 불편함을 인지하는 정도, 자녀와 친

4) 이 글은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서 수행한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2007)의 결과를 요약, 발췌한 것임.

밀감을 느끼는 정도는 자녀가 본인의 소생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즉, 전처소생 자녀와의 관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인 부인 가족의 학령기 자녀들 중 7.0%가 자신의 학교나 학원에서 또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었음.

□ 초등학생을 둔 외국인 부인(121명)의 79.2%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참여했는데 이는 주로 학교행사(62%)나 교사면담(44%)이었음. 아버지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55.1%로 부인이 외국인이더라도 자녀교육 문제는 부인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

□ 외국인 부인 중 자녀를 한국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는 의견이 과반수 정도였고, 약 1/4정도는 본국과 한국 둘 다라고 응답하였음.

□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중고생일 때보다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음 (초등생 78.3%; 중고생 67.9%).

□ 초등생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사교육비 부담(45.8%)>숙제 도와주기(35.8%)>한국말 의사소통이 잘 안됨(17.5%)>성적문제 및 학습부진, 방과후 돌보기(간식제공, 맡길 시설등(11.7%) 순으로 많이 지적.

□ 중고생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사교육부담(35.7%)>한국말 의사소통이 잘 안됨(28.6%)>성적문제 및 학습부진(10.7%) 순으로 많이 지적.

□ 외국인 부인이 느끼는 자녀 정체성을 보면, 자녀를 한국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는 사람이 50.2%, 본국과 한국 둘 다 30.2%, 본국사람 2.8%, 상관없다 8.8%로 자녀가 다문화적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는 비율이 약40%정도 됨. 다른 한편, 한국인 남편의 경우에는 자녀가 다문화 정체성(23.3%)을 갖기보다는 한국인(71%)으로 정체성을 갖기를 원함.

□ 외국인 남편이 느끼는 자녀 정체성도 부인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49.3%가 한국인으로 자녀을 키우고 싶다고 하였으며, 본국과 한국 둘 다 28.6%, 상관없다 9.9%, 본국 4.4%로 자녀가 다문화정체성을 갖기를 원하는 비율이 38.5%임.

2.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방향과 다문화가족 자녀관련 정책제안[5)]

□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지원 정책 비전

○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지원 장단기 계획(안)은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사회조성'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함.

○ 이를 위하여 본 계획은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가족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지원 정책 목표

○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을 비롯한 지역사회 모든 가족들이 다문화 사회의 주체가 되어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3대 정책 목표를 설정

○ 첫째, 국제결혼 이민자의 정착지원을 통한 '한국생활 적응력' 제고

-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경기도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빠른 시간 내에 지역사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 보장 및 각종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 습득과 한국 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한국생활 적응력을 제고함.

○ 둘째,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주체적 성장과 사회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인적 자원과 문화적 역량 발휘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

○ 셋째, 도민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과 기반조성을 통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들과 조화롭게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도민의 다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세계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함.

□ 주요 영역과 정책과제

○ 본 계획에서 설정한 정책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개 주요 영역과 17개 정책과제를 도출함.

○ 7개 주요영역과 정책과제 내용은 아래 <그림 1>과 같음.

<그림 1>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지원 장단기 계획의 정책 비전, 정책 목표 및 주요 영역

5) 이하 글은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의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지원 장단기계획」(2007) 연구보고서에서 발췌, 정리한 것임.

비 전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사회	
목 표	▶ 국제결혼 이민자의 정착지원을 통한 ‘한국생활 적응력 제고’ ▶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주체적 성장과 사회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도모’ ▶ 도민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과 기반조성을 통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주요 영역 및 세부 목표	**1. 한국생활 조기정착 지원**	○ 한국생활에 대한 조기적응 ○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2. 조화로운 가족관계 정립	○ 가족성원들 간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통한 가족관계 강화 ○ 가족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다문화 가족의 차세대 지원 강화	○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해소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 ○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
	4. 기본생활 및 인권보장	○ 안정적인 생활보장 ○ 건강 및 인권확대
	5.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 개발	○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자원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
	6. 지역사회 다문화 환경 조성	○ 다문화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지역주민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
	7. 추진체계 구축	○ 추진체계 확립 ○ 정확한 실태자료 구축

3. 자녀 양육과 교육 관련 정책제안[6)]

1) 학령기 자녀의 역량 강화

○ 기초학습 지원체계 마련

① 귀국반 운영시 다문화 가정 자녀 적극적 포함 운영

- 국제결혼의 경우 재혼이 많아 전 결혼에서의 자녀들이 있으며, 이들이 부/모의 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와 생활할 경우 한국어 사용이나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됨.
- 최근 외국에서 생활하다 귀국한 자녀들을 위한 귀국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어 위와 같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이 학생들에 대한 편입학 절차 및 학력인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② '숙제봐주기 프로그램'적극 실시

- 교내 학부모, 학교교사, 대학생 멘토 등을 활용하여 자녀들의 숙제지도, 준비물 등에 대한 준비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학습 준비도를 높이도록 함.

③ 지역사회 연계 공부방 사업 적극 실시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도 및 시 ·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공부방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함.

○ 이중언어 사용능력 강화

① 특수외국어 활용을 위한 방과후 특별학급 운영

- 교육청 주관 영재반 운영시, 언어영역의 경우 영어에 집중되어 있던 것을 특수외국어까지 확대하여 권역별로 특별학급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언어사용 능력이 뛰어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선발하여 도내 대학과 연계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연계 언어영재반을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② 특수 외국어 경진대회 운영

-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사용능력 제고뿐만 아니라 부/모가 사용하는 외국어 사용을 위한 외국어 경진대회를 통해 자아 효능감을 고취시키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심리 · 정서적 지원 서비스 실시

① 국가 · 국민 · 민족 정체성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실시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관련 사업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생

6)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의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지원 장단기계획」(2007) 연구보고서에서 학령기 자녀에 대한 부분만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길 수 있는 정체성 부분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의 정체성과 관련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

② 예방적 집단상담 강화

- 학교 내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정체성 관련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밖 전문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자녀들의 다양한 심리 ·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도록 함.
- 학교내 전담교사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자녀들의 발달상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 병행하도록 함.

2) 다문화 교육기반 조성

○ 학내 다문화 감수성 증진 교육 실시

① 학생 대상 인권과 다문화 감수성 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전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인권교육과 타문화 존중교육이 강화되도록 함.

② 교사들을 위한 다문화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다문화 관련 문제 발생시 교사들의 행동과 관련된 학내 행동지침 마련.
-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다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다양한 교수방법과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함.

③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원 보수교육 실시

- 도내 다문화 가족관계, 위기상담 등 상담관련 교육시 청소년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다문화 이해 증진 교육을 실시함.
- 도내 '다문화 교육센터'가 지정될 경우 관련 보수교육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함.

○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① 국제결혼 부모들의 학교 참여 지원환경 구축

② 학부모 자조모임을 통해 국제결혼 한 외국인 부모들도 학부모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는 지원환경을 구축하도록 함.

③ 다문화 가정 학부모 대상 입학설명회 등 오리엔테이션 기능 강화

- 문서를 통한 자료도 도움이 되지만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통해서 입학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함.
- 입학 전이나 신 학년 시간 전에 다음 학기 학사일정 및 교육내용 등을 미리 알려주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다양한 외국어 지원이 되도록 전문인력과 연계)

다문화사회의 과제

최종식(경기일보 기자)

사회학자들은 미래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말한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경제의 글로벌화 등으로 이미 개방국가는 다문화사회의 진척이 상당부분 이뤄져 있고, 현재의 민족중심도 필연적으로는 다문화사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족한 노동력 대체 인력을 비롯 다국적 기업의 한국진출은 단일민족국가라는 뿌리 깊은 인식을 뒤흔들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한국의 단일민족 의식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맞고 있고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왔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변화는 뿌리깊은 선입견의 해소나 사회구조적인 측면 등 각분야별로 다양하게 진행돼야 할 과제이지만 교육문제로 정리하면 큰 틀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교육인 것 같다.

솔직히 다문화사회에 대한 교육은 아직 초보적 단계로 토론자 역시 지향점을 잘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같은 인식은 센터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나마 우리사회에서 변화에 민감한 교사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면 일반인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교육에서부터 시작돼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문화교육과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다문화자녀(학생)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됐다. 일천한 교육분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매우 유익한 자료이고 앞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다만 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로서의 교육은 이제 다문화자녀에 한정돼서는 곤란하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글로벌 인재이든 다문화사회의 주역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소양이라는 점에서 전체 교사가 인식의 변화, 선입견의 제거 등을 위한 연수 등이 필요하다.
다문화교육은 자녀와 그 주변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포괄적인 교육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덧붙여 언론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도 병행돼야 할 과제다. 매체의 영향력이 큰 상태에서 언론의 온정적 태도나 선정적 비판 보도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제약하는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부 록

-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소개
- 다문화교육 관련 통계자료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관련근거

○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에 의거 (2007. 5) 지역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함

○ **경기도교육청**은 7월 6일 **경기도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를 공모하였음.

○ 2007년 7월 18일 **경기대학교**에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함.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21470(2007.07.20)

주요역할

○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공모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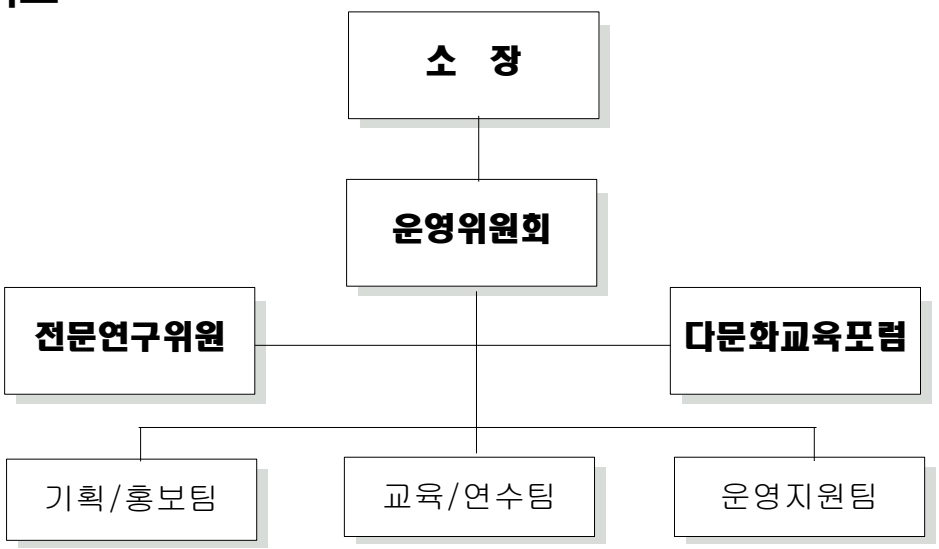
○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 다문화 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조언

○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핵심교원 양성 및 연수

조직도



주요사업 - 기본사업

사업명	사업기관	사업대상	관계기관
다문화교육포럼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 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 연구 • 교육 전문가 및 활동지도자	경기도, 경기도육청, 경기대학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 연수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시범연수	경기도 다문화교육센터	교사	경기도육청, 경기도민주시민교육연구회, 경기대학교 중등교원연수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및 사이버 상담실 운영	경기도 다문화교육센터	대학생(예비교사)자원봉사 단체 및 동아리	경기대학교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원곡고 등

주요사업 - 공모사업

사업명	사업기관	사업대상	관계기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보육 및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남외국인 노동자의 집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및 유아자녀 (미취학 아동 포함)	경기도교육청 한국YW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문화 교재 개발 및 보급	경희대학교 한국 언어문화 세계화 사업단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자녀	경기도교육청,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세계화재단, 국립국어원
문화적 편견 극복 프로그램 운영(다문화전시관 체험활동 등)	원곡고등학교	일반 학생 및 다문화가정 자녀	경기도교육청, 각국 대사관, 안산 시청 등
경기도내 다문화 교육현장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다문화연구센터	다문화가정 및 학교	경기도교육청 (사)국경없는 마을 (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

주요사업 - 연구학교

사업명	사업기관	사업대상	관계기관
이중언어 교육을 통한 학생의 조기 적응 및 글로벌 인재육성	미원초등학교 (경기가평)	일반학생및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 체험활동을 통한 글로벌 시민자질을 함양	양지고등학교 (경기안산)	일반학생및외국인노동자가정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향후 추진 사업

1)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사업 과제 개발 및 유관기관 연계사업 개발
2) 다문화 교육관련 축제 (안산, 성남 등) 지원
3) 특수 외국어 경진대회 추진 및 운영
4) 일반 학생 대상 인권과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증진교육 실시
5) 경찰 검찰 법무부 등 사법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6) 주한 상사주재원 외교관 자녀 등 전문인력의 자녀들을 위한 한국문화 이해와 다문화교육 실시
7)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다문화 다인종 간 교류와 이해교육 실시
8) 기타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사업

다문화교육 관련 통계자료

-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교육청)

- 국내 외국인체류 현황
  (법무부)

1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 국제결혼가정 자녀

○ 총 혼인건수 대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11.9%에 달하는 39,690건**(2006년 기준, 통계청)

※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혼인건수는 30,208건이며, 이중 중국 14,608건(48.4%), 베트남 10,131건(33.5%)로 전체의 81.9%인 24,739건 차지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

<전국 현황>

연 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114.6	1,588	172.4	413	100.5	13,445	119.7

※증감비율은 전년도 대비임

<경기도 현황>

연 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1,259		176		45		1,480	
2006	1,454	15.5	338	92.1	60	33.3	1,852	25.1
2007	2,283	81.3	460	161.3	127	182.2	2,870	93.9

※ 증감 비율은 2005년 대비로 산출함

○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전국 대비 경기도 소재 학교의 재학생 비율이 초등학생은 20%, 중학생은 29%, 고등학생은 30.8%로 전체학생의 21.4%에 해당함<2007년 기준>

□ 외국인근로자 자녀

○ 국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은 **630,627명**

- 등록 외국인(합법체류자) 중 5세 이상 19세 이하는 **25,488명**으로 전체 외국인 인구의 **4% 해당**

○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취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추정

연 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계	증감(%)
2005	995		352		227		1,574	
2006	1,115	12.0	215	-39.0	61	-73.1	1,391	-11.6
2007	755	-32.3	391	81.9	63	3.3	1,209	-13.0

○ 외국인근로자의 가족 형성에는 개입되는 변수가 많아 현재로서는 정확한 규모 파악에 한계

〈 외국인근로자 자녀 시·도별 학교급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계
초	199	43	28	97	7	25	2	204	28	23	17	3	14	64	1	755
중	233	13	1	6	1	6	0	97	4	12	1	1	1	15	0	391
고	36	3	0	2	0	0	0	11	4	1	1	0	1	4	0	63
합계	**468**	**59**	**29**	**105**	**8**	**31**	**2**	**312**	**36**	**36**	**19**	**4**	**16**	**83**	**1**	1,209

〈경기도 소재 초·중·고 재학 외국인근로자 자녀 국적별 현황〉

시도	부 모 출 신 국 별													
	일본	중국 (조선족)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기타	계
전국	258	181	50	69	38	8	30	329	20	58	39	11	87	1,209
경기도	47	35	16	31	2	2	11	103	3	30	11	3	18	312
비율	18.2	19.3	32.0	44.9	5.3	28.0	36.7	31.3	15.0	51.7	28.2	27.3	20.7	25.8

□ 탈북자(새터민) 자녀

○ 2005년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자는 총 7,991명으로, 2000년 이후 매년 1,000명 이상의 탈북자가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입국인원이 전년 대비 47.8% 늘어나는 등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령기 청소년(6～20세) 입국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 등에 국내 입국 희망 인원이 적체되어 있으므로 향후 대량 입국이 예상되며, 학령기 청소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자 자녀 재학생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초	139	32	6	30	6	8	9	58	4	6	17	3	4	9
중	93	10	4	13	4	7	2	29	1	0	8	1	2	5
고	51	10	4	3	0	0	0	3	2	0	1	1	0	1
계	283	52	14	46	10	15	11	90	7	6	26	5	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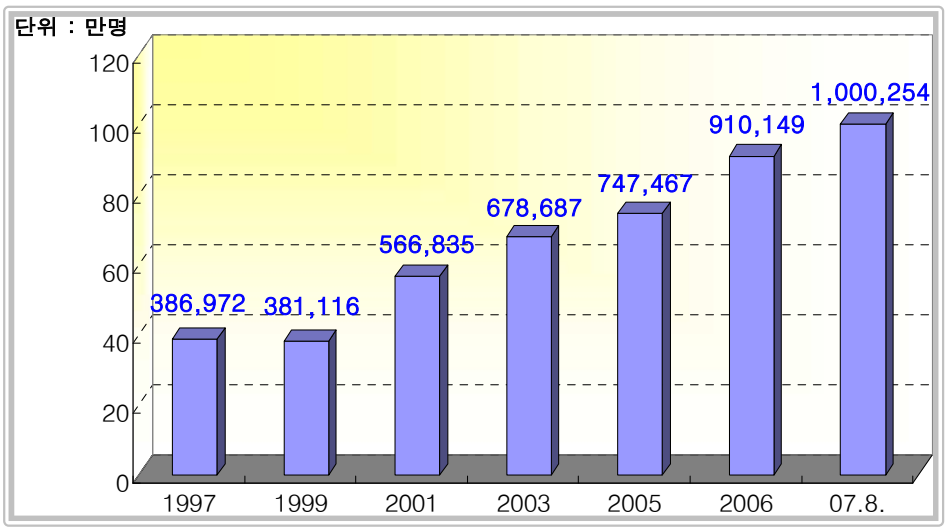
* 경기 안성 삼죽초등학교 25명 포함;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85명) 제외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5.

2 국내 외국인 체류 현황 - 법무부

'07. 8. 24.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이 100만254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음. 이로써 체류외국인이 주민등록인구 4천913만 명의 2%를 차지하였으며, 2006년 7월(86만5천889명)보다 15% **증가**하는 등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음.

<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현황 >



< 국민대비 장기체류(등록)외국인 비율 >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현
등록외국인	40,519명	40,920명	49,507명	110,028명	210,249명	510,509명	724,967명
국 민	38,123천	40,805천	42,869천	45,092천	47,008천	48,294천	49,134천
대비(%)	0.10	0.10	0.11	0.24	0.44	1.05	1.48

※ '등록외국인'이란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한 사증을 소지하고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로, 장기체류외국인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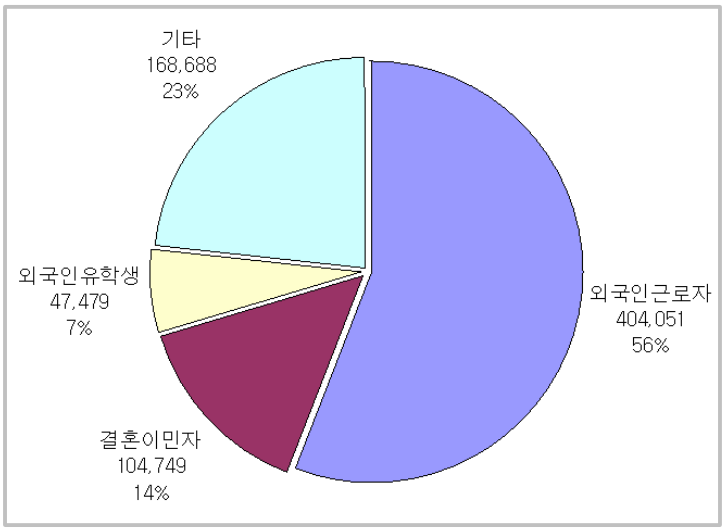
이는 불과 10년전인 1997년(38만6천972명)보다 158% 증가한 수

치로,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 **국적별로는** 중국이 44%인 44만1천334명(중국동포: 26만6천76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2%인 11만7천938명, 베트남이 6%인 6만4천464명, 필리핀이 5%인 5만264명, 태국이 4%인 4만2천792명, 그 외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순이다.

-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상위 5개국이 70%를 상회하는 71만6천792명을 차지, 체류외국인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전체 장기체류외국인 72만4천967중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는 56%인 40만4천51명, 결혼이민자는 14%인 10만4천749명, 국어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이 7%인 4만7천479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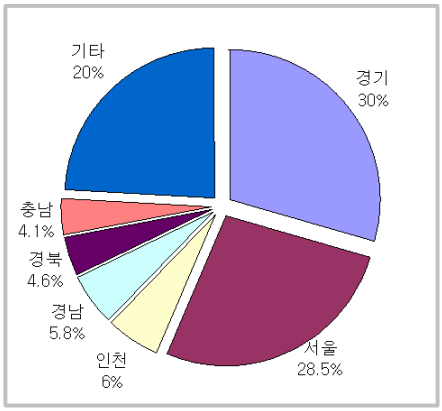


- 외국인근로자의 93.3%에 해당하는 37만7천373명은 단순기능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을 단순기능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이민자는 '02년 3만4천710명에서 2007년 현재 10만4천749명으로 불과 5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영주권자는 '02년 6천22명에서 2007년 현재 1만5천567명으로 2.5배가량 증가하는 등 **정주외국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정주자격자(거주·영주자격자)수 : '02년 57,478명⇒'07년 현재 129,679명

○ **지역별 외국인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경기(30%), 서울(28.5%), 인천(6%), 경남(5.8%), 경북(4.6%), 충남(4.1%), 충북(2.8%) 등으로 서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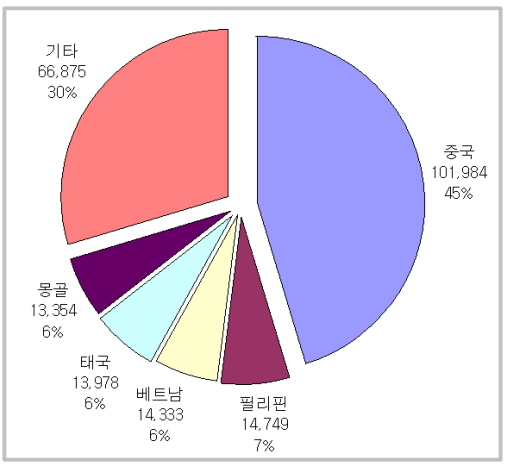
기·인천에 약 64.5%가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체류자**를 살펴보면

○ '97년의 경우 체류외국인 38만6천972명 중 불법체류자는 14만8천48명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07년 현재 불법체류자는 22만5천273명으로 나타났다.

○ **국적별로는** 중국이 10만1천984명(한국계 중국인 : 3만7천573명)으로 45%, 필리핀이 1만4천749명으로 7%, 베트남이 1만4천333명으로 6%, 그 외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의 순이다.



○ 2007년 6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 현황 : 49,134,055명

※ 자료원 :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 국적별 장기체류외국인 현황

총 계	724,967
중 국	356,409
베트남	59,796
필리핀	41,937
태 국	30,890
미 국	48,817
인도네시아	23,309
대 만	21,984
몽 골	20,212
일 본	18,673
스리랑카	11,652
우즈베키스탄	11,389
파키스탄	8,746
카나다	6,952
방글라데시	8,465
네 팔	4,992
인 도	4,129
러시아	4,056
영 국	3,107
기 타	39,452

○ 체류자격별 장기체류외국인 현황

총 계	724,967
유 학	36,175
산업연수	50,434
일반연수	2,789
국어연수	10,527
종 교	1,721
상사주재	1,494
기업투자	7,635
무역경영	2,182
교 수	1,233
회화지도	15,769
연 구	2,184
예·체능	3,766
특정직업	6,092
연수취업	64,467
비전문취업	139,910
방문동거	42,475
취업관리	49,262
결혼이민자	103,152
방문취업	91,381
기 타	92,319

[MEMO]

[MEMO]